

대화 용어 사용의 문제점

- 화법 교과서를 중심으로 -

주경희*

〈차 례〉

- I. 문제제기
- II. 화법 과목의 문제점 및 용어의 중요성
- III. 대화 용어의 실례 및 문제점
 - 1. 화법 유형과의 변별성 문제
 - 2. 대화 특성 제시의 문제점
 - 3. 자료 제시의 적절성 문제
- IV. 대화 용어 개념 설정 방향
- V. 맺음말

I. 문제 제기

이 글에서는 ‘대화’ 용어 사용의 적절성을 화법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과서나 학문에서의 용어 사용은 해당 분야의 내용이나 자료 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용어법의 적부는 그 내용의 타당성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이용주(1993)의 언급을 참고로 한다면 용어 사용과 내용 구성의 밀접한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화의 개념은 아직 합의된 바 없다.’라는 진술이나 ‘대화는 연구자의 정의에 따라 그 개념이 상당히 유동적인 용어 중 하나이다.’(노

* 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은희, 1999: 259)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화'에 관한 논의 역시 많은 문제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화법 교과서에서 '대화'는 일정한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아 분명한 '대화'의 특성이나 다른 화법 유형과의 변별성이 뚜렷하게 기술되지 않고 있다.¹⁾ 이에 따라 '대화 기법', '기술', '규칙', '방법' 등에 대한 논의 역시 명료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은 '대화'라는 용어가 적용되어야 할 상황 및 조건에 대한 기준을 바르게 기술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²⁾ 물론 화법 과목을 뒷받침하는 화법 이론에서조차 일정하게 정리되지 않은 용어들이라 논의의 한계가 있다.³⁾ 그러나 화법 유형과 그에 관련된 내용을 개괄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화법 과목에서는 이론서들과 달리 용어의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등학교 '화법'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1) '화법', '화법 유형', '말하기' 등 관련 용어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화법의 개념은 논자마다 다르다. 임철성(1997: 77)에서 화법 교육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기 위한 화법의 명확한 정의 및 연구와 교육 대상 방법 확정과 이에 따른 원리와 이론 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임철성(1999: 23)에서 '화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화법의 개념적 정의조차 내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하듯이 아직 미완(未完)의 용어이다. '화법'과 '말하기'를 구별하는 용법도 보인다. 이주행(2003: 20) 등 화법 교과서에서의 화법이란 주로 '화자와 청자가 함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뜻한다. 그런데 "대중 화법에 강연, 연설, 구두보고 등의 '말하기 형태'가 있다"는 설명에는 위와 같은 화법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 말하기 형태가 구체적인 것이라면 화법은 그보다더 추상적인 층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들 용어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앞으로 이 글에서는 교과서에서의 용법을 따르기로 한다. 그에 따라 화법이란 '말하기'(speech), 화법 유형이란 '말하기 형태'(type of speech)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 2) 대화 개념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대화의 기법이나 대화의 방법등에 진술한다면 그것은 다른 화법 유형에 대한 기술이 되기 쉽다. 이러한 의견은 Donaldson(1979: 259)에서도 찾을 수 있다.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If we are going to talk about rules for conversational behavior, we need to be explicit about in which situations it is that we mean for these rules to apply"
- 3) 이대규(1999: 66)에서의 용어로 화법의 교육 내용을 제공하는 학문을 화법 이론이라고 한다. 화법 이론 Theory of speech communication은 음성 언어로 의미 교환을 잘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화법 교과서의 배경이 되는 여러 이론들 예를 들면 텍스트 언어학, 대화 분석론, 화용론 등을 뜻한다.

‘국어’ 교과목의 ‘말하기’, ‘듣기’ 영역의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말하기와 듣기의 특성과 원리를 이해하고 말하기와 듣기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능과 태도 및 습관을 형성하게 하는 과목이다. 이 목적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현재 입시나 취업에서의 면접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화법 과목은 학습자들이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과목이다. 그럼에도 필요만큼 이 과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러한 필요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화법 과목이 보다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올바른 용어 사용이다. 이미 여러 논저에서 화법 교육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기 위해 ‘화법’을 비롯한 여러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요구하는 데 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대화’를 중심으로 화법 교과서에서 용어 처리 방법 및 문제점을 살펴본 후 개념 설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대화’라는 용어의 개념 정리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⁴⁾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교과서에서의 대화 용법을 살펴본 후 용어의 특성에 비추어 분석하기로 한다.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대화 용어 사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화 개념 설정 방향을 Donaldson(1979)을 중심으로 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II. 화법 과목의 문제점 및 용어의 중요성

이 장에서는 화법 과목의 문제점을 용어 사용법과 관련지어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용어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용어란 전문 어휘이

4) 이것은 화법 전반적인 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화’ 용어 설정은 ‘대화’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다. 5) 특정 분야의 전문가의 이성적 판단에 따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반 어휘가 나타내는 자의성, 사회성과 같은 특성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용어는 분명한 어휘 체계, 상하위어의 관계 및 일정한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일반 어휘에 있는 동음이의어, 다의어 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용어는 그 용법이 일정한 조건으로 제약된다. 이로 인해 특정 분야의 용어집 내에 있는 용어들은 서로 분명하고 뚜렷하게 구별된다. 그럼으로써 용어는 일정한 체계 속에서 규범화되고 표준화된다.

학문은 해당 분야의 고유의 용어로 기술된다. 경제학은 경제 용어로 기술되듯이 화법 과목은 화법 용어로 기술된다. 올바른 용어는 해당 분야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는 점에서 '대화'라는 용어는 대화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어야 한다. 반대로 이 용어 자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모호할 때 '대화'가 무엇인가를 알기 어렵다. 현재 교과서에서의 '대화' 용법이 이렇하다. 교과서마다 서로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는 '대화' 개념 때문에 '대화'의 특성이나 그에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은희(1999: 267)에서 "'화법의 원리' 부분에서 제시된 내용 선정하기, 조직하기, 표현하기 등은 일방적인 말하기에는 적합하지만 '대화'처럼 상호작용을 본질로 하는 의사소통 유형에는 반영하기 곤란하다. 마찬가지로, 교재들의 세부적인 학습 활동에서도 '대화'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에서도 잘 나타난다.

'대화'가 현재처럼 다양한 층위의 담화 유형을 일컫는 개념으로 사용되면 다른 화법 유형과의 변별성이나 '대화' 고유의 특성을 제시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대화'가 아닌 예로 '대화'를 설명하고 있어 '대화' 능력 향상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연구자들의 엄격한 용어 사용에 대한 의지와 인식의 부족을 들 수 있다.

5) 용어의 특성에 논의는 임홍수(1995)를 참고로 설명하기로 한다. 어휘를 일반 어휘와 전문 어휘로 나눌 경우 전문 어휘를 용어라고 한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 간행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용어를 '일정한 전문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로 정의한다.

이대규(1999: 14)에서 “화법 교육과정 개발자들이 화법에 관한 기초 지식조차 없어 화법 단원이나 화법 교과서는 피상적인 지식과 수준 낮은 예문으로 채워질 것이며, 학교의 교실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교사와 학생이 여전히 쓸모없고 피곤한 화법 수업을 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라는 진술은 다소 지나친 비판으로 보이나 결코 간과하기 어렵다.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러 곳에서 지적된다.

화법 과목이 국어 과목의 말하기, 듣기 영역의 내용 체계와 크게 다른 바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화법 과목이 국어 과목의 말하기, 듣기 영역을 심화, 발전시킨 것이라는 목표설정과 달리 별로 구체화된 것은 없고 다만 용어를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 이유를 화법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결과로 해석한 강석인(1997: 48)의 지적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것이다.

그리고 이대규(1999: 99)에서의 “화법 과목의 내용 중에는 담화 생산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없으며 담화의 종류를 언급하는데 있어 화법 교육과 거의 관련이 없는 항목도 있다.”라는 지적이나 노은희(1999: 267)에서 화법 과목에서 ‘대화’와 관련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지도 내용이 부족한 이유를 ‘대화’와 그 언어 사용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부족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심과 인식의 부족이 용어 사용에도 나타나는 것 같다. 용어가 교육 대상, 방법, 원리, 이론 정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엄격한 용어 사용만으로도 화법 과목이 지닌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화법 과목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이인섭 1998: 148)는 지적 역시 이는 화법 과목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일정한 체계 속에서 명확하게 진술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화법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필요한데 그 중의 하나가 화법 관련 용어들의 표준화와 규범화 작업이다. 일관되고 통일된 용어 사용은 각 화법 유형들의 본질 및 상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가르칠 때 앞에서 제시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Ⅲ. 대화 용어의 실례 및 문제점

화법 교과서에서의 '대화'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실제 예들을 분석하면서 용어의 특성 실현 여부와 용어 사용이 갖는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화법 교과서에서의 '대화' 개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⁶⁾

- (1) ① 대화란 화법의 유형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서로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화법이다. (김광해 외 2002: 158)
- ② 대화란 일상생활에서 두 사람 이상이 모여 말로써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활동이다. (이주행 외 2004: 119)

위에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1)의 ①에 비해 ②에서의 '대화' 개념이 더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②에서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 말하는 화법으로 규정하여 '면담', '인터뷰', '상담' 등을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과서에서 '대화'의 개념이 표준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동일 교과서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 (2) ① 대화란 화법의 유형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방법으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서로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화법이다. (김광해 외 2002: 158)

6) 제 7차 교육과정 화법 교과서 중 김광해 외(2002), 이주행 외(2004)만을 대상으로 한다. 교과서마다 구성 방식 용어 사용 등에 있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 두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 본고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

- ② 면담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상의를 하거나 서로 면대하여 질의와 응답을 하는 것으로 일상 대화와 달리 공식적인 대화의 한 형태이다. (김광해 외 2002: 261)

(2)에서 동일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층위를 나타내는 ‘대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2)의 ②에서는 ‘면담’을 ‘대화’의 한 형태로 규정하여 ①과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용어 사용 문제는 ‘대화’의 분류 방법에서도 나타난다. (2)의 ②에서의 ‘공식적인 대화’란 (2)의 ①에서 ‘대화’를 규정할 때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⁷⁾

따라서 (2)의 ②에서의 ‘대화’란 ①의 ‘대화’가 아니라 모든 화법의 상위 유형으로 ①과는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만약 ②의 정의를 그대로 따른다면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낼 수 있다.

(3) 대화 - 공식적인 대화 - 면담
사적인 대화 - 대화⁸⁾

위와 같은 분류에서 ‘대화’는 ‘면담’과 ‘대화’의 상위 개념으로 설정할 수 있다. 동일한 어휘가 상위어와 하위어로 동시에 사용되는 것은 용어의 특성에 어긋난다.

(1)(2)에서 ‘대화’는 일정한 의미 역이 없고 상하위어로 동시에 사용되므로 표준화된 용어라고 보기 어렵다. 이로 인해 ‘면담’, ‘인터뷰’, ‘상담’과 구별할 수 있는 ‘대화’ 고유의 특성이나 변별성을 찾기 어렵다.

물론 ‘대화’는 화법 이론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된다.⁸⁾ 그러나 교육적

7) 이주행 외(2004: 126)에서도 ‘대화’를 이루어지는 상황을 기준으로 ‘공적인 대화’와 ‘사적인 대화’로 분류한다. 그리고 ‘사적 대화’의 예로 ‘일상의 대화’를 ‘공적 대화’의 예로 ‘방송’, ‘대담’, ‘면담’, ‘회견’, ‘정상 회담’ 등으로 분류한다.

8) 화법 이론에서도 ‘대화’ 개념은 일정하지 않다. ‘일상생활에서 두 사람 이상이 서로 대하여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상호적인 언어활동을 말하며, 연설의 형태를 제외한 모든 언어활동’(구현정, 1997: 25)이라는 ‘대화’ 개념은 ‘면담’, ‘면접’ 등의 화법 유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화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용어로서의 특성을 나타내지 못한

입장을 고려한다면 화법 교과서에서의 통일된 용어 사용을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용어 사용법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인식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용어 사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화법 유형과의 변별성 문제

‘대화’ 용어가 일정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아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변별성 문제이다. 아래 제시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용법에서의 ‘대화’의 특성을 현재 화법 교과서에서의 ‘대화’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⁹⁾

- (4) ① 내 생각인지는 몰라도 당에서 대화나 논의한 적은 없다.
- ② 이들과 대화를 하고 가끔은 의견 차이로 논쟁을 벌이기 때문에 상당수 생산직 근무자들이 영어를 구사한다.
- ③ 시·도지사가 도청이전 및 시·도 통합 관련 논란의 책임과 통추위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말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며 진정 시·도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놓고 서로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문(4)에서 ‘대화’는 ‘논의, 논쟁, 말싸움’ 등과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현재 화법 교과서의 ‘대화’ 개념으로 설명하

다. 박용익(1998: 272)에서도 ‘대화는 회화, 담화, 담소 등을 통괄적으로 지칭하는 상위 개념이다.’라고 같은 입장을 취한다.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저서에서의 서로 다른 용법을 발견할 수 있다. 정시호(1999: 335)에서는 ‘비특정적이고 비전문적인 인간 상호간의 교제를 구성하는 필수적 요소’와 ‘흔히 (구어상의)대답이 지닌 비교적 일반적 의미’라는 일치되지 않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넓은 의미의 대화’, ‘좁은 의미의 대화’ 혹은 ‘일상 대화’, ‘판매 대화’, ‘면접 대화’ 등으로 서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 어휘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대화’의 이러한 용법은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9) 인터넷 중앙일보 자료임

기 어렵다.¹⁰⁾

또 다른 문제점을 살펴보자. 대개의 고등학교 화법 교과서에서는 '화법 이론'과 '화법의 실제 유형'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화법의 실제 유형'에서는 '대화, 연설, 토의, 토론, 면담'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¹¹⁾ 그러나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대화'와 이들 화법 유형과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앞에 든 예문 (2)의 ②와 같은 면담의 정의로는 '대화'와 '면담'의 차이가 없다. 특히 (2)에서의 '공식적인 대화'는 책 김광해(2003: 41)에서 '사적인 화법'과 '공적인 화법'과 관련짓는다면 더욱 혼동스럽다. 동일한 책에서 '대담', '상담', '면담', '회견' 등을 '공식적인 화법'의 예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화자와 청자가 함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김광해 2003: 14)이라는 '화법'의 개념을 참고하면 '화법'과 '대화'는 서로 다른 용어이다. 그럼에도 ②에서 '공식적인 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공식적인 화법'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 '대화'의 본질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기에 충분하다.

이는 용어를 사용하는 조건이나 적용되어야 할 상황을 분명하게 기술하지 않아 나타나는 문제이다. '공식적인 대화', '사적인 대화'에서의 '대화'와 '가장 일상적이며 형식에 구애 받지 않는다는 대화'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이러한 용어 사용법으로는 해당되는 용어의 특성을 나타내기 어렵다. 그리하여 다른 화법 유형과의 차이점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다.

10) 먼저 '논쟁'이나 '논의'는 주제 및 소재가 한정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다는 점에서 '대화'와 구별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화'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말하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싸움'은 상호 협력 상태에서 주제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힘이나 권리 혹은 감정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대화'와 구별할 수 있다. 화자 자신만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이어서 내용을 발전 전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해 감정을 드러내므로 상호의존적인 자세를 지향하는 대화와는 구별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화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상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거나 이들 용어 개념을 표준화 시키면 다른 화법 유형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기술하기 용이하다.

2. 대화 특성 제시의 문제점

규격화되지 않은 ‘대화’ 용어 사용은 화법 교과서의 ‘대화’에 대한 설명 방법의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교과서의 내용을 직접 언급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 제시하는 예에서 ‘대화 참여자’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5)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진실 된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대화를 하기 전에 대화의 목적과 대화 상대자의 특성, 장면, 메시지의 조직 등을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듣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이처럼 대화는 참여자가 공동으로 노력할 때에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말을 하는 사람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대화의 목적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것인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즐거움을 나누기 위한 오락적 대화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대화의 목적이 무엇이나에 따라 말하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광해 2002: 167)

(5)와 같은 ‘대화 참여자의 특성’은 ‘대화’ 참여자들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5)에 ‘대화’ 대신 ‘토의’, ‘토론’, ‘상담’, ‘면담’ 등으로 대체하여도 내용 전개에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대화 참여자 고유의 특성에 대한 언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화 참여자는 여러 면에서 다른 화법 유형의 참여자들과 구별된다. 이를 Donaldson(1979: 279)에서는 ‘대화 참여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관계나 역할에 관계없이 대화에 과정에서는 동등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Steger에서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대칭적 관계’(이원표 1997: 150)로 설명한다.

대화 참여자들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이들이 외적으로 갖는 신분이나 나이의 차이에 관계없이 ‘대화’ 내에서 동일한 말차례 교대권을 갖고 그리고 주제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참여자간의 상호작용이 주기적인 평등성으로 변환·고정되면서 실제적인 역사적 장로서 나타난다.’(Luckmann, 1990: 58, 노은희, 1999, 재인용), ‘대화 참여자는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목적을 추구해 가는 적극적인 존재’(유동엽, 1997: 2), ‘제도적인 환경이 아닌 상황에서 두 명이상의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번갈아 가며 주고받는 발화 교환’(노은희, 1999: 258) 등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대화 참여자에 대한 이러한 언급을 참고로 할 때 위에 제시한 것은 ‘대화’가 아닌 일반적인 화법 유형의 참여자의 관계이다. ‘대화’의 방법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이다. 아래 예시하는 내용은 ‘대화’의 방법만이 아니다. 일반적인 모든 화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6) 첫째, 일반적으로 물음, 부탁, 설명 등 하나의 내용이 일단 끝난 다음에 말한다.

둘째, 하나의 내용을 말한 뒤에 잠시 멈추는 시간이 생겼을 때 자신이 말을 해도 될지 상대방이 좀 더 말할지를 판단할 수 없다면 잠시 기다렸다가 여전히 말이 없을 때에 말을 시작한다.

셋째, 상대방이 비교적 오랫동안 말을 할 때에도 듣는 이는 적절히 반응하여 대화의 리듬을 살려 준다. 상대방의 말에 동의할 때에는 ‘그래’, ‘물론’, ‘그래도’, ‘정말’ 등의 말을 하고, 자세한 내용을 더 유도해 내려면 ‘그래서’, ‘그다음은’, ‘다음엔 어땠어?’ 등으로 반응하며, 내용을 전환시키려면 ‘그런데’, ‘그건 그렇고’, ‘그렇다 치고’ 등으로 이끌어 간다. (이주행, 2004: 122)

예문 (6)은 ‘대화의 방법’에 관한 것인데 이 역시 ‘대화’ 이외의 ‘면담’이나 ‘면접’에서 제시하여도 될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일반적 말하기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

‘대화’는 일정한 조건이 있는 참여자들이 모여, 일정한 목적을 이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말차례 교대 등이 결정되는 다른 화법 유형과는 구별되는 점이 많다. 이러한 점을 화법 교과서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

화법 이론에서 제시하는 자유로운 말차례 교대의 원리, '대화'를 구성하는 각 발화간의 기능, 인접쌍, 선호 조직, '대화'의 시작이나 종결 방법, 발화 연속체에서 교정과 수정 방법, 말하기의 효율성과 관련된 소규모 집단의 '대화'에서 주로 나타나는 담화 표지 등과 같은 내용들이 화법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해 결국 '대화'를 '대화답게' 기술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대화'라는 용어 사용법과 관련된다. '대화'의 본질 및 이 용어 사용 조건에 대한 깊은 고찰과 반성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다른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이주행(2004: 31)¹²⁾의 '대화의 내용 선정'의 소단원은 '말하기의 목적 설정, 주제의 설정과 화제의 선정, 대상과 상황과의 고려, 자료의 수집과 선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소제목을 통해서 '대화'의 특성을 '목적이 있는 것', '주제나 화제의 선정 방법' 등으로 기술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대화'의 특성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대화'의 특성은 목적이 없으며 주제 및 화제를 미리 선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화'는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화자 혼자 이 모든 것을 미리 결정하지 않는다.

'대화'라는 용어가 적용되어야 할 상황이나 조건에 대한 기술이 바르게 되어야 대화의 특성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화법 유형과의 변별성도 확보되는 것이다.

3. 자료 제시의 적절성 문제

올바르지 않은 '대화' 용어의 사용은 적절하지 못한 자료 제시로도 나타난다. 현재 화법 교과서에서는 '대화'가 아닌 자료로 '대화'를 설명하고 있다.

12) 대개의 교과서가 이러한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 교과서만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이 점 양해를 구한다. 그리고 교과서마다 대단원 및 소단원 설정이 조금씩 다르나 결국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즉 만화나 산문류의 대사, 혹은 드라마 대사 등으로 ‘대화’의 적절성, ‘대화’의 상황, ‘대화’의 상호작용의 원리 등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이다. 대화 분석론이나 텍스트 언어학에서 실제 대화를 전사한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을 생각 할 때 화법 교과서에서 이러한 자료 선정 방법은 많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들은 일상 대화와 다르다는 점이다. 먼저 만화 자료와 ‘대화’와의 차이점에 대해 생각하기로 한다. 백준기(1999), 양태영(2000), 이정애(2000)에 의하면 만화는 시각예술의 소통매체로서 그것만이 갖는 기호와 의음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일상 대화와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만화에서는 브리핏(briffit), ‘하이츠(hites)’, ‘아지트론즈(agitrons)’, 와프트룸(waftarom), ‘플루드(pleud)’, ‘다이츠(dites)’ 등 시각적 형태로 메시지를 전달하므로 그림을 살피지 않으면 의미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이러한 그림은 ‘대화’에 관여하는 상황과는 다르다. 만화에서 메시지의 전달법과 ‘대화’에서의 메시지 전달법은 다르기 때문이다. 만화에서는 언어텍스트와 그림텍스트가 결합하여 의미를 전달하므로 언어텍스트의 의미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그림텍스트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정애(2000: 259)에서는 “문자언어인 소설과 그림과 글의 결합으로 된 만화는 전혀 다른 내적 법칙을 가진 장르이다”고 분명하게 주장하는데 이처럼 만화는 고유의 특성이 있다.

드라마 대사도 ‘대화’와 다르다. “대사는 정통적인 대화와는 대립되는 개념이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문학적 대사-연극 대사나 소설에서의 대사로 존재하기도 하고, 구어의 형태, 즉 영화의 대사(dialogue) 등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또한 외국어 교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말의 교환도 이런 의미에서 대사의 범주에 속한다.”(이두현, 1996: 18)는 주장이 이를 잘 나타낸다.

이처럼 만화나 산문류, 드라마 대사는 일상 대화와 다른 특성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일상 대화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대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인식의 부족과 ‘대화’ 용어 사용에 대한 기준

(norm)이 부족한 데 기인한다.

IV. 대화 용어 개념 설정 방향

지금까지 '대화'라는 용어 사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것을 기초로 '대화' 개념 설정 방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대화'라는 용어 설정의 원칙은 먼저 다른 화법 유형과의 변별성을 갖도록 규정되어야 하며 이에 다른 '대화' 고유의 특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대화'라는 용어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여러 논저에서 '대화'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대화'란 '주제가 일정치 않고, 참여자들에 의해 주제의 자의적인 변경이 나타난다.'(박정준, 1994: 11), '자유로운 형식'(문금현, 2000: 121), '순서 교대 면에서 참여자 모두가 협력하여 말차례를 조절해 나간다'(박성현, 1996: 0), '자연스런(natural), 자발적인(spontaneous), 계획적인(unplanned), 마음 내키는 대로(casual)'(송영주 역, 1993: 62)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 Donaldson(1979)에서는 '대화'라는 용어가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제시한다.

- (7) ① Minimum of two participants(2명 이상의 참가자가 있어야 한다.)
- ② Necessity of taking turns(참여자간의 말차례 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③ Remarks of participants deal with roughly the same subject, are not random.(참여자 간에 동일한 주제에 대한 말을 해야 한다)
- ④ Remarks must contain some information, not be empty.
(말하는 내용이 일정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 ⑤ Interaction must not be primarily for an explicitly

statable purpose: it's not for 'business'.(특정한 목적을 띠지 않고 상호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⑥ For the duration of the exchange, participants behave as equals, with neither acting as an authority.(동등한 힘, 권리에 의해 말차례 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⑦ Remarks must have some measure of spontaneity and non-predictability.(내용이나 방법 등이 미리 정해지지 않아야 한다)
- ⑧ Participants display some degree of reciprocity in their utterances.(자기의 의사 표현을 주장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특정 참여자에게 리드 당해서는 안된다)
- ⑨ Few imperatives appear.(명령형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위에 제시된 것들을 통해 '대화'는 '대화 참여자의 동등성'이나 '말차례 교대의 자유로움'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한 대화 방법' 등으로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대화'의 특성을 논함에 있어 이러한 내용들이 강조되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Donaldson(1979)의 '대화' 용어 사용 조건을 좀더 자세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대화를 할 때 참여자들이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참조해서 서로 연관성 있는 말을 해야 한다. Piaget의 collective monologue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소년의 서로 연관성 없는 말하기를 보고 우리는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지는 않는다.13)

말을 한다고 하는 경우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안녕', '어 그래 오랜만이다'와 같이 단순한 인사말이나 '날씨 좋죠?', '어디 가세요?' 등과 같은 의례적인 말들이 오가는 것을 대화라고

13) Pie : Where could we make another tunnel? Ah, here, Eun?

Eun : Look at my pretty frock.(Piaget 1959: 58)

Donaldson(1972: 261)에서 재인용

할 수는 없다. '대화'는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며 이것을 흔히들 정보라고 한다. 그러나 특별한 목적을 띠고 정보를 교환한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다. '대화'의 중요한 특징은 목적이 없는 자연스런 말하기라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상점이나 길을 묻기 위한 말하기는 '대화'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특별하고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말을 했기 때문이다. 엄마와 아이의 진정한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로부터 정보를 캐내기 위한 목적을 띠어서는 안 된다. 물론 '대화'를 통해서 알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 그 자체이어서는 곤란하다. '대화'는 미리 예측 가능한 발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프로그램화된 다른 화법 유형과 구별된다.

이러한 '대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인사말', '길 물을 때의 말하기' '수업에서의 교사와 학생들의 말하기'는 '대화'가 아니다. 화법 교과서에서도 상황에 따른 화법의 유형으로 '길 묻기 화법', '소개 화법', '전화 화법' 등으로 나누면서 이들의 공통점으로 '일정한 형식이 있음'을 들고 있다.(김광해, 2003: 43)¹⁴⁾ 교과서에서 '길 묻기 대화'가 아닌 '길 묻기 화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대화' 개념을 바르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주행(2003: 130)에서 '전화상의 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여전히 '대화'라는 용어가 특별한 조건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화'의 이러한 특성을 화법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 대화에 관한 논의가 '대화' 능력 향상이나 '대화' 장애 요소 극복을 이해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바로 위와 같은 '대화' 고유의 특성을 고려

14) 이 화법들은 대개 일정한 형식을 나타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길 묻기 화법은 대부분 '실례합니다로 시작하여 어떤 장소로 가는 방법을 묻고 그에 대해 대답한 후 서로 간에 인사를 나누고 끝난다. 전화 화법은 항상 "여보세요"로 시작하여 간단한 안전을 서로 나눈 후, "그럼, 안녕."이나 "이제, 끊을게."와 같은 인사말을 나누고 끝난다. 또 소개 화법의 경우는 '신분 밝히기→인정하기→소개 유도→개인에 관한 정보 제시'와 같은 관용적 표현 형식이 있으며, 수업 화법의 경우는 '도입(복습과 본시 안내)→전개(본시 주제 전개)→정착(정리와 과제 부과, 차시 안내)' 등의 형식을 갖는다.(김광해, 2003: 43)

하여 '대화' 참여자의 특성이나 '대화'의 방법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화법 교과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말차례 교대의 원리, 인접쌍, 발화 교정이나 수정의 방법, '대화'의 시작과 진행 그리고 끝맺음 구조와 관련된 각 발화 기능의 기능, 발화연속체에서 구조에서의 우김, 수정, 구체화, 계속, 반복 등의 방법 등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화법 교과서의 용어 사용의 문제점을 '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용어는 그 내용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일상 어휘와 구별되는 특성을 나타낸다.

'대화'에 관한 많은 논저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논의는 찾기 어렵다. 이로 인해 선명하고 명료하게 기술되어야 할 교과서에서조차 분명하지 않은 '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법 교과서마다 그리고 동일교과서 내에서도 서로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 일관성과 객관성을 잃고 있다.

둘째, 분명하지 않은 용어 사용은 '대화'와 다른 화법 유형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하게 하며 다른 개념들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대화'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 '대화' 고유의 특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말하기의 원리로서 '대화'를 설명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습자들의 흥미를 잃게 하고 '대화'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넷째, '대화' 예문으로 제시된 자료가 적절하지 못하다. 현재 '대화'의 자료로 만화, 드라마 대사, 소설 등의 산문류의 대사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로는 일상 대화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은 분명하지 못한 용어 사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

다.

교과서에서는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에서 ‘대화’ 개념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대화’ 내용 구성 단원이 구성되고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용어의 명료함은 내용 체계의 명료함을 낳고 바로 이러한 일관되고 명료한 내용이나 용어 사용이 있을 때 화법 과목은 학습 목표를 바르게 이룰 수 있다.*

* 본 논문은 2004. 9. 30. 투고되었으며, 2004. 10. 2. 심사가 시작되어 2004. 10. 13.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강범모(1999), 『한국어의 텍스트 장르와 언어 특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 강석인(1997), “화법 교과서 규범론”, 『배달말 교육학회』 17집.
- 구현정(1997), 『대화의 기법』, 한국문화사.
- 김광해 외(2003), 『고등학교 화법 교과서』, 형설출판사.
- 김순자(1999), “대화의 맛장구 수행 형식과 기능”, 『텍스트언어학』 6, 한국텍스트 언어학회.
- 김종택 외(1998), 『화법의 이론과 실제』, 정림사.
- 김정선(1999), “상거래 대화에서의 공손 책략”, 『텍스트 언어학』 7,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김희수(1994), 『화술의 이론』, 전남대 출판부.
- 노은희(1999), “대화의 특성과 지도방법”, 『텍스트 언어학』 7, 한국텍스트 언어학회.
- 문금현(2000), “대학에서의 화법 강의안”, 『국어 화법과 대화 분석』, 한국화법학회
- 박성현(1995), 『한국어 말차례 체계와 화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박용익(1998), 『대화분석론』, 한국문화사.
- 박준경(1994), “담화의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 연구” - 토론담화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백준기(1999), “연구논문 : 만화미학탐구” - 만화텍스트의 호적 구축을 위하여, 『만화기호의 의미, 체계, 영역』,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 송영주 역(1993) 미카엘 스테브즈, 『담화분석』, 한국문화사
- 안주호(2001), “교양국어에서의 대화 교육”, 『국어국문학』 128, 국어국문학회.
- 양태영(2000), “시사만화텍스트의 언어학적 분석”, 『한국어의미학』 6, 한국어의미학회.
- 유동엽(1997), “대화 참여자의 대화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이대규(1999), “국어교육학 영역 : 화법 교육(1)”, 『선청어문』 2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이두현(1994), “대화 분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박사학위논문.
- 이문규(2002), “화법의 개념과 화법 교육의 방향”, 『어문교육』 25집, 어문교육학회.
- 이원표 옮김(1992), 『담화 연구의 기초』, 한국문화사, Renkema, Discourse studies an introductory Textbook.
- 이옥련·민현식 외(1996),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용주(1993), “표현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선청어문』 21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과.
- 이인섭(1998), “화법교육의 일방안”, 『국어교육』 96,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이주행 외(2003), 『고등학교 화법 교과서』, (주)금성출판사.
- 이정애(2000), “국어교육과 만화의 텍스트적 변용”, 『국어교육학 연구』 11, 국어교육학회.

임철성(1997), "화법 교육의 방향 연구", 『국어 교육』 94, 한국 국어교육연구회.

_____(1999), 『국어 화법의 성격 고찰』, 화법학회.

전영우(1987), 『국어화법론』, 집문당.

정시호 역(1995), "텍스트학", 민음사, Van Dijk 'Text wissen schaft Eine inter disziplinare Einfuhrung'.

Donaldson(1979), "One Kind of Speech Act : How Do We Know When We're Conversing?" Semiotica 28. Jou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emiatic studie, Mouton.

〈초록〉

대화 용어 사용의 문제점

- 화법 교과서를 중심으로 -

주경희

화법 과목은 화법 용어로 기술되어야 한다. 화법의 내용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화법 용어 선정 및 개념 설정이 필요하다. 화법 교과서의 용어는 내용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글에서는 용어 사용의 문제점을 '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화'의 경우 교과서마다 더욱 동일한 교과서 내에서도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규범화 되고 표준화된 용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용어 사용으로 인해 다른 화법 유형과의 변별성 부족, 대화의 특성 제시 부족, 적절하지 못한 자료 제시라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화법 교과서의 내용에서 이러한 문제점은 '대화'라는 용어가 바르게 설정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핵심어】 대화, 대화 유형, 용어, 변별성, 대화 특성, 대화 자료

〈Abstract〉

The Problem of Correct Establishments
of Proper Terminologies Related to Conversation

Chu, Kyoung-hee

The subject of Speaking must be stated with the related terminologies. In order to correctly describe the Speaking concepts, both choice of correct terminology and correct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are necessary. Terminologies used in the textbook for Speaking have close relationships with organization structures of the textbook contents.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problems related to the use of the terminologies with focus on Conversation. The meaning of Conversation has different meanings by different textbooks, furthermore it has different meanings even with an same textbook.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state that there are norms and standardizations related to Conversation related terminologies.

The causes of this problem, as I analyzed in this article, are lack of differences between different Speaking types, insufficiency in presentation of speci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Speaking and presentation by improper materials related to Speaking. These problems can be resolved by correct establishments of proper terminologies related to Conversation.

【Key Words】 conversation, speaking types, terminology, differences, characteristics related to speaking, materials related to speaking